

# 종이팩 분리배출하니...“매월 소나무 40그루 심는 효과”

### 광산구, 보상 포인트제 운영으로 월 평균 2t 수거, 전년대비 4배 ↑ 종이팩 분리배출 문화 정착...온실가스 감축, 선별비용·시간 절약

광주 광산구가 수거보상 포인트제 및 수거함 설치 등의 적극적인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월 소나무 40그루 식재효과와 맞먹는 수거 실적으로 자연 순환구조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순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수거 보상 포인트제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광산구만 운영하는 제도로,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분리배출하면 크기, 개수 등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준에도 종이팩, 폐건전지를 현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지만, 보상 물품이 소진되거나 정해진 수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시민의 참여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포인트제는 수거 개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 참여가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00포인트당 건전지(2개입 1세트), 화장지(2롤), 종량제 봉투

(20L) 중 원하는 보상도 받을 수 있어 구민의 호응도가 크다. 참여 인원만 1300여 명에 달한다.

광산구는 올해 5월엔 5100만 원을 들여 관내 공동주택, 카페, 공공도서관 등 339곳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도 설치했다.

시민이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SNS 등을 통해 수거 보상 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도 함께 전개했다. 이 결과 올해 종이팩 분리배출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월 평균 종이팩 수거량은 2톤으로, 지난해 0.5톤보다 무려 4배나 증가했다.

또 광산구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종이팩 수거함 12곳도 설치·운영 중인데, 2532명이 관련 앱에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월 평균 수거량은 250kg 정도다. 고급 펄프가 재료인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대부분이 골판지 박스 등 일반 종이류와 함께 배출되고 있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은 연간 7만 톤 규모로, 이 중 70%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이를 재활용하면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1750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50m 화장지 2억1000롤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종이팩 재활용 기반을 만들고 있는 광산구의 노력이 주목 받는 이유다.

통상 종이팩 1톤을 재활용하면 온실가스 132kgCO2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20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은 효과다. 광산구가 거두고 있는 월 2톤 규모의 분리배출량은 매월 20년생 소나무 40그루를 심는 것과 같고, 1년으로 치면 480그루 식재한 것과 맞먹는 셈이다. 여기서 시민이 깨끗하게 씻어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별도 선별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환·시민단체들도 광산구의 수거 보상 포인트제를 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는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거 보상 포인트제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의 분리수거왕’을 선발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심각한 기후위기로 이제는 ‘밀환경’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며 “시민의 참여와 과감한 실천으로 자원순환 구조가 일상에 뿌리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홍수정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가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종이팩 수거함에 종이팩을 분리배출하고 있다.

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제로웨이스트 도시, 폐기물 재자원화 모델 구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쓰레기센터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제1회 쓰레기환경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시민행복실현 혁신선도 정책역량 입증

### 늘행복 프로젝트 대통령상·골목경제 대상 ‘겹경사’

광주 광산구가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표사업들이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연대·협업으로 주거, 의료, 일자리, 돌봄, 공동체 등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원한 늘행복 프로젝트는 지난 15일 최고 권위의 정책경연대회인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행안부 주관 2021년 골목경제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선 ‘산정길 골목경제협약체가 그려낸 만세프로젝트’ 사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지난 19일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앞장선 광산구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이 행안부 주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광산구의 우수 정책은 다양한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광산경제백신회의를 구성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한 성과로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

상’ 2년 연속 우수상, 아이스팩 재사용, 공유주차장 등을 통한 도심주차난 완화 등 적극행정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사회적 돌봄 대상자(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를 위한 ‘동심비감면 자동서비스’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혁신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광산구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수상 실적은 민선 7기 광산구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주목하며 경제와 안전, 행복을 중심으로 혁신정책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도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마을과 함께 하자, 야호!’

### 광산구 하남동, 찾아가는 주민자치 환경교육



광주 광산구 하남동 주민들이 광산구 주관 ‘찾아가는 주민자치 환경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이 2021년 주민참여예산 ‘마을과 함께 하자, 야호!’ 사업으로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주민자치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시작한 이번 교육은 하남동 모아엘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외 4곳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11월 5일까지 열린다. 장소별로 환경전문가 이론교육 1회와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체험 3회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업사이클링 체험으로는 아이스팩 내용물을 이용한 방향제 만들기, 양말목을 활용한 냄비 받침, 캔·용기를 활용한 화분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남동 행정복지센터(062-960-7815)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활약상 공유

### 광산구, 워크숍 개최...‘코로나19 위기극복 숨은 영웅’ 감사장

광주 광산구가 다양한 재능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의 활동을 공유하고,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함께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3일 오후 광산구청 7층 운상실에서 개최한 광산구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워크숍이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선 영상을 통해 재능기부단 추진배경, 운영방향, 활동 모습을 공유했다.

15개국 91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은 지난 7월부터 기초질서지킴이 캠페인, 코로나19 확산예방 홍보물 다국어 번역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등록외국인 백신접종 사전예약, 역학조사 등 방역현장 곳곳에서 활약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의 숨은 영웅’으로 불렸다. 행안부 경진대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재능기

부단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무지개 토크’에선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을 대표해 3명의 단원과 김삼호 청장이 활동소감, 소회를 나누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은 앞으로도 통역지원과 자율방범, 기술보유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행정서비스 관련 통역 봉사,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자율방범 활동, 전문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광산구의 매력을 한층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숨겨진 재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지분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우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